

## 해군 이지스구축함 '세종대왕함' 진수식 축사

친애하는 해군 장병 여러분, 현대중공업 임직원 여러분,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신 귀빈 여러분,

연설문을 잘 만들어 왔습니다. 그런데 가슴이 벅차 제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.

오늘은 우리 해군이 세계 최고 성능을 가진 배를 가지게 된 날입니다. 이름도 누가 지었는지 '세종대왕함' 입니다. 어떤 역사학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세종대왕 시대, 15세기 전반에 전 세계에서 50여 개의 과학적 발명이 있었는데, 그중에서 우리 한국이 22개를 개발하고 중국이 3개, 일본이 한두 개, 전 세계가 나머지를 발명했다고 합니다. 말하자면 세종대왕 시대가 과학기술 문명이 가장 발달했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지요. 우리나라 국력이 그 어느 때보다 융성했던 때였습니다. 그러므로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유지됐던 때였습니다.

대한민국 최고 번영의 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지도자 세종대왕, 그분의 이름을 딴 배를 우리나라 해군이 갖게 됐습니다.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? 정말 축하드립니다.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해군이 된 것입니다.

이 배를 어디서 돈 주고 사온 것도 아니고 바로 이곳, 현대중공업에서 만들었습니다. 현대중공업은 지금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진 세계 제일의 조선소 아닙니까?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세계 최고를 할 우리의 자랑스러운 기업 아닙니까?

지금 최고가 벌써 세 가지입니다. 이름도 최고고, 배도 최고고, 조선소도 최고입니다. 울산이 또 예사로운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? 우리나라 산업화를 가장 앞장서서 이끌었던 대표적인 산업 도시입니다. 울산의 기업과 시민들이 원체 열심히 해서 아직도 한국 최고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여전히 그 활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. 역시 일류 도시 아닙니까?

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. 4개의 일류가 겹쳐진 곳에 있습니다. 정말 자랑스럽고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싱거운 얘기 한 말씀 드릴까요? 1966년 울산이 산업도시로 처음 개발될 때 제가 이곳에 와서 몇 달 막노동을 했습니다. 저도 한몫을 한 것 아닙니까? 해군뿐만 아니라 우리 군 모두가 아주 기쁜 날입니다. 어찌 우리 군만 기쁘겠습니까? 오늘 이 순간을 우리 국민들이 함께 기뻐하고 기억할 것입니다.

정말 이 좋은 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,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. 우리가 언제까지 북한하고만 아웅다웅하고 있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? 장차 저는 동북아시아의 질서가 화해와 협력, 그리고 통합의 질서로 나아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. 전 세계의 질서가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시아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.

그러나 아직도 동북아시아에는 멈추지 않는 군비 경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.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힘을 함부로 쓰지 않으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아무리 평화를 지키고자 해도 스스로 평화를 지킬 능력이 없으면 평화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. 지난날 역사에서 우리가 얻었

던 경험대로 이제 우리 스스로를 확실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춰 가야 합니다. 가장 상징적인 전투 능력이 바로 이지스구축함으로 표현되는 것 아닌가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

앞으로 해군력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의 전투력에서 우리 스스로를 확실하게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. 전쟁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광의의 방위력을 확고하게 갖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.

국민 여러분께 오늘 이만한 준비를 갖추 수 있도록 밀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해군력뿐만 아니라, 또 군사력 뿐만 아니라 경제력을 포함한, 문화력을 포함한, 더 나아가서는 민주주의 수준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.

다시 한 번 세종대왕함의 진수를 축하드리며,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빕니다. 감사합니다.